

사상체질의학의 심성과 MBTI 성격유형의 설문 비교 연구

성진혁* · 한국MBTI연구소**

Abstract

The comparative questionnaire study of the spirit of Sasang Constitution with the MBTI classification of character

Sung Jin-hyuk* · Korea MBTI laboratory**

This study started from the curiosity that Sasang Constitution spirit of Lee Je-ma has something to do with MBTI based on classification of character of C.G. Jung.

This reports made from the information of 368 people who got the Sasang Constitution therapy and showed the good result in health in my hospital and they take part in self-report from of MBTI which are made as statistics and research in relationship between Sasang Constitution spirit of Lee Je-ma and classification of character of C.G. Jung This is the statistical result of the research.

There is not exactly statistical result which support Sasang Constitution spirit of Lee Je-ma relate to the classification of character of C.G. Jung. The identification of statement of Sasang Constitution spirit with partispart is average 41 which is low while the identification of classification of character with partispart is average 76 which is high.

In this result, It is hard to get general agreement that the statement of Sasang Constitution of spirit relate to the classification of character because of the difference of identification. so more studies are needed in this part.

1. 緒 論

동무 이제마는 「동의수세보원」에서 인간의 체질적인 유형을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으로 구분하여 선천적인 체질을 논하면서 마음에 있어서도 각 체질마다 고유한 性氣, 情氣, 性質才幹, 恒心, 心慾이 있다고 보았다.

정신분석학자 C.G. Jung은 사람의 선천적인 성격 유형이 있으며 이를 8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를

Myers, Briggs 모녀에 의해 더 깊이 연구되었고 성격 유형을 16가지로 분류하여 체계화 완성시켰다. 현재 이 16성격유형의 MBTI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심리검사 도구 중 하나가 되었다. 이 MBTI를 활용하여 이제마의 선천적인 사상체질의 심성과 MBTI의 선천적 성격유형의 서로 연관성을 조사하고 사상체질의학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 있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 성대원한의원 ** MBTI 전문가 교육훈련과 관련 연구, 저술, 번역 기관
교신처: 성진혁 주소)부산광역시 북구 구포1동 147-1 성대원 한의원 전화)051-342-7575 E-mail)14438@hanmail.net

II. 研究方法

사상체질이 임상적으로 확인된 사람들로 하여금 MBTI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작성케 하여 어떤 성격 유형인지 알아보고 또한 사상체질의 성격을 설명한 내용과 MBTI에서 설명하는 성격유형의 내용이 당사자로 하여금 각각의 일치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설문하여 비교해보았다.

1. 연구대상 및 체질 진단 방법

2001년 3월에서 6월까지 본원에 내원한 환자 중 容貌詞氣, 體形氣像, 性情, 病證 등을 고려하여 사상체질 처방을 투약하였고 치료가 부작용 없이 양호하게 이루어진 사람들 중 MBTI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는 학력인 고등학교 재학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남녀별, 연령별, 체질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1) 조사 대상자의 남녀별, 연령별, 체질별 분포

성별		연령별	
남	103명	17-20세	27명
여	265명	21-30세	105명
체질별		31-40세	137명
태음인	143명	41-50세	80명
소양인	200명	51세이상	19명
소음인	20명	(총인원:368명)	
태양인	5명		

2. 연구방법

성격유형론에 관한 학습을 위해 한국 MBTI 연구소에서 교육하는 전문가 수련과정 초급, 보수, 어린이, 중급 과정 총 88시간을 이수하였고 MBTI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다룰 수 있는 자격을 받았다. 위의 연구대상이 된 사람들에게 MBTI 설문지를 작성하여 상담을 한 후 성격유형을 찾아 확인하였다. 그 과정 중 사상체질에 따른 심성 설명지를 읽게 하고 또 성격유형에 따른 설명지를 읽게 하여 각각의 설명지

의 내용이 자신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즉 몇 %나 일치하는지를 물어보고 답한 점수를 기록하였다.

사상체질에 대한 심성 설명은 “알기 쉬운 사상의학 - 송일병 著”의 책에서 심성으로 체질을 구별하는 방법 p39 - p47에 나오는 내용과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 II)에서 심성에 관한 내용으로 각 체질별 설명지를 만들었고 성격 유형에 대한 설명지는 번역서 “나의 모습, 나의 얼굴3 - 김정택, 심혜숙 공역”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사상체질 심성 설명지는 「알기 쉬운 사상의학」에서 주로 인용하였으나 “박은경, 박성식의 QSCCII 설문지 문항에서의 체질별 응답차이 비교 분석 연구4”란 논문에서 특히 통계상 체간의 응답차이가 있는 문항을 선별하여 첨가하였다.

3. 통계

SPSS윈도우를 사용해 χ^2 검증을 사용하였다. 일원변량분석을 사용하였다.

III. 결과

각 선호지표별, 체질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2) 외향(E), 내향(I)과 사상체질별 분포

	소양인 (명/%)	태음인 (명/%)	소음인 (명/%)	태양인 (명/%)	계	전체인구 중 비율
E	85(42.5)	71(49.7)	7(35)	1(20)	164(44.6)	35%
I	115(57.5)	72(50.3)	13(65)	4(80)	204(55.4)	65%
계	200(100)	143(100)	20(100)	5(100)	368(100)	100%

(표3) 감각(S), 직관(N)과 사상체질별 분포

	소양인 (명/%)	태음인 (명/%)	소음인 (명/%)	태양인 (명/%)	계	전체인구 중 비율
S	182(91)	123(86)	17(85)	4(80)	326(88.6)	80%
N	18(9)	20(14)	3(15)	1(20)	42(11.4)	20%
계	200(100)	143(100)	20(100)	5(100)	368(100)	100%

(표4) 사고(T), 감정(F)과 사상체질별 분포

	소양인 (명/%)	태음인 (명/%)	소음인 (명/%)	태양인 (명/%)	계	전체인구 중 비율
T	150(75)	108(75.5)	17(85)	3(60)	270(75.5)	65%
F	50(25)	35(24.5)	3(15)	2(40)	90(24.5)	35%
계	200(100)	143(100)	20(100)	5(100)	368(100)	100%

(표5) 판단(J), 인식(P)과 사상체질별 분포

	소양인 (명/%)	태음인 (명/%)	소음인 (명/%)	태양인 (명/%)	계	전체인구 중 비율
J	100(50)	67(46.9)	18(90)	5(100)	190(51.6)	65%
P	100(50)	76(53.1)	2(10)	0	178(48.4)	35%
계	200(100)	143(100)	20(100)	5(100)	368(100)	100%

(표12) 사상체질 심성 설명지와 성격유형 설명지의 일치도 분포

ISTJ				ISFJ				INFJ				INTJ							
소양인	54	64%	23	75	소양인	17	59%	44	75	소양인	3	50%	21	75	소양인	1	25%	20	80
태음인	22	26%	69	74	태음인	7	24%	61	77	태음인	1	17%	40	75	태음인	1	25%	45	80
소음인	8	9%	64	76	소음인	3	10%	76	80	소음인	2	33%	73	75	소음인	1	25%	70	80
태양인	1	1%	40	70	태양인	2	7%	35	80	태양인	0				태양인	1	25%	65	85
계	85	100			계	29	100			계	6	100			계	4	100		
ISTP				ISFP				INFP				INTP							
소양인	25	52%	26	74	소양인	7	50%	28	73	소양인	3	30	22	75	소양인	2	40%	20	75
태음인	23	48%	61	76	태음인	6	43%	61	74	태음인	7	70	53	80	태음인	3	60%	55	75
소음인	0				소음인	1	7%	70	70	소음인	0				소음인	0			
태양인	0				태양인	0				태양인	0				태양인	0			
계	48	100			계	14	100			계	10	100			계	5	100		
ESTP				ESFP				ENFP				ENTP							
소양인	20	56%	61	74	소양인	20	57%	87	77	소양인	4	44%	75	76	소양인	2	28%	73	77
태음인	16	44%	25	78	태음인	15	43%	15	75	태음인	5	56%	21	77	태음인	5	72%	24	76
소음인	0				소음인	0				소음인	0				소음인	0			
태양인	0				태양인	0				태양인	0				태양인	0			
계	36	100			계	35	100			계	9	100			계	7	100		
ESTJ				ESFJ				ENFJ				ENTJ							
소양인	24	53%	65	76	소양인	9	45%	82	79	소양인	2	100	85	83	소양인	2	40%	80	75
태음인	21	43%	59	76	태음인	8	40%	20	74	태음인	0				태음인	2	40%	20	78
소음인	1	2%	70	85	소음인	3	5%	65	76	소음인	0				소음인	1	20%	65	70
태양인	1	2%	80	80	태양인	0				태양인	0				태양인	0			
계	47	100			계	20	100			계	2	100			계	5	100		

전체 사상체질 심성 설명지와 평균 일치도 ; 47

전체 성격유형 설명지와 평균 일치도 ; 76

예시)

ISTJ				
소양인	54	64%	23	76
태음인	22	26%	69	75
소음인	8	9%	62	70
태양인	1	1%	40	85
계	85	100		

↓
사람수

↓ 사상체질 심성 설명지와 평균일치도
↓ 성격유형 설명지와 평균일치도

예시에 대한 설명:

전체 조사 대상자 중 ISTJ형은 85명이며 이것을 100%로 했을때 ISTJ 중 소양인은 54명으로 64%를 차지했고 태음인 ISTJ는 22명으로 26%, 소음인 ISTJ는 8명으로 9%, 태양인 ISTJ는 1명으로 1%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소양인 ISTJ 54명은 사상체질 심성 설명지와 자신이 평균 23%정도 일치한다고 했고 성격유형 설명지와는 평균 76% 일치한다고 하였음을 표시하였다.

그 외 사상체질이 MBTI 선호지표의 다양한 조합, 즉 기능, 태도, 4분할, 에너지 방향과 판단, 기질의 관계에서 통계상 별다른 유의성이 없었다. 그래서 이와 관한 통계 처리한 (표6)에서 (표11)까지는 지면 관계상 생략하였다.

(표 13) 사상체질의 심성 일치도와 성격유형의 인구비중과의 관계 분포

전체 인구 중 인구비중이 큰 순서대로	사상체질의 심성일치도 평균 점수			
	소양인 (평균/명)	태음인 (평균/명)	소음인 (평균/명)	태양인 (평균/명)
ISTJ(30%)	23/54	69/22	64/8	40/1
ESTJ(15%)	65/24	59/21	70/1	80/1
ISFJ(15%)	44/17	61/7	76/3	35/2
ESFJ(8%)	82/9	20/8	65/3	0/0
ISFP(8%)	28/7	61/6	70/1	0/0
ISTP(6%)	26/25	61/23	0/0	0/0
ESTP(3%)	61/20	25/16	0/0	0/0
ESFP(3%)	87/20	15/15	0/0	0/0
INFJ(3%미만)	21/3	40/1	73/2	0/0
INTJ(3%미만)	20/1	45/1	70/1	65/1
INFP(3%미만)	22/3	53/7	0/0	0/0
INTP(3%미만)	20/2	55/3	0/0	0/0
ENFP(3%미만)	75/4	21/5	0/0	0/0
ENTP(3%미만)	73/2	24/5	0/0	0/0
ENFJ(3%미만)	85/2	0	0/0	0/0
ENTJ(3%미만)	80/2	20/2	65/1	0/0

소양인은 체질 심성 일치도가 내향형에서는 낮고 외향형에서는 높았다. 그러므로 전체 인구비중이 높은 내향형들의 지지가 낮아 전체 평균점수가 45.3으로 낮았다.

태음인은 체질 심성 일치도가 내향형에서는 높고 외향형에서는 낮았다(ESTJ제외). 그러므로 전체 인구비중이 높은 내향형들의 지지가 높아 전체 평균점수가 49.4로 소양인보다 높았다.

소음인은 체질 심성 일치도가 내, 외향형에서 모두 비교적 높아 다른 체질보다 평균점수가 67.8로 가장 높았다.

IV. 고 찰

대부분의 독자들이 MBTI에 대해서 생소하므로 우선 MBTI에 대해서 대충의 설명을 먼저 하고자 한다. 그러면 독자의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MBTI 소개

- MBTI에 관한 아래의 자료는 한국MBTI연구소와 한국심리검사연구소에서 제공하였다.^{3,5,6)}

인간의 성격을 유형으로 나누어 개인간의 차이를 설명하려했던 최초의 시도는 Enneagram으로 불리는 수피교의 신비주의로 그들은 9가지 숫자로 인간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 이 Enneagram은 BC 2500년경 바빌로니아에서 시작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또 고대 동양의 점성가와 희랍의 학자들은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를 공기, 물, 불, 흙 4원소를 통해서 설명하려 했다. 이러한 고전적인 시도 후에도 인간의 성격 특징을 유형화함으로써 보다 자세히 개인차를 설명해보려는 시도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의 개인차를 이해하려는 이러한 욕구에 힘입어 C.G. Jung은 사람들을 보다 깊이 관찰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그의 심리유형이론을 제시했다. Jung은 인간의 심리적 에너지는 그 사람의 내부에서 아니면 바깥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어떤 사람은 내향성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은 외향성이 된다. 그는 인간이 외부 환경을 대하는 방법에도 사람에 따라 각기 독특한 기능이 있음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감각이나 직관 기능을 많이 사용하는 인식형이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사고나 감정기능을 주로 사용하는 판단형임을 관찰하였다. Jung은 이러한 기능의 선호성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며 이러한 근본적인 선호성이 각기 다른 심리유형을 지닌 인간의 개인차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선호성은 어떤 민족이나 문화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에게 본질적인 것으로 믿었다.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는 C.G. Jung의 심리유형 이론에 바탕을 두고 인간의 인식과 판단의 선호경향을 알아내는 성격검사이다. MBTI는 1900년에서 1975에 걸쳐 Katherine Briggs와 그녀의 딸 Isabel Myers, 그리고 손자 Peter Myers에 이르기까지 무려 삼대에 걸쳐 70여 년의 세월 속에 만들어졌다. Briggs와 Myers는 20여 년에 걸친 인간관찰을 통하여 융의 심리유형이론의 타당성을 확증하였고 이러한 확증에 따라 성격유형을 잡아낼 수 있는 타당한 질문지를 만들게 되었다.

MBTI에서는 인간의 성격유형이 4가지 선호성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며 4가지 선호척도의 기능을 보다 깊이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이해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해에도 도움을 주어 보다 원활한 인간관계

를 이루어 나가는데 도움이 됨을 강조하고 있다. MBTI에서 나타내고 있는 4가지 선호성 지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외향성-내향성(Extraversion-Introversion)

외향성의 사람들은 주로 외적 세계를 지향하므로 그들의 인식과 판단도 외부세계와 외부환경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당신이 외향성의 사람이면 당신은 외부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에 의해 에너지를 얻게 되며 외부세계가 당신의 에너지를 지향하는 방향이 된다. 외향성의 사람들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외적경험을 필요로 하고 먼저 행동으로 체험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그들은 활달해 보이고 활동적으로 보인다.

내향성의 사람들은 주로 내적 세계를 지향하므로 그들의 인식과 판단 역시 개념이나 사상 등 자신의 내부세계에 더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당신이 내향성의 사람이면 당신은 내면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에 의해 에너지를 얻게 되며 이것이 당신의 에너지가 지향하는 방향이 된다. 내향성인 사람들은 그들의 업무가 생각을 주로 하는 활동을 많이 요구할 때 더 많은 흥미와 편안함을 느낀다. 그들은 세상을 직접 경험하기 전에 먼저 생각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외향성

- 에너지 집중이 자기 외부세계로
- 외부활동과 적극성
- 폭넓은 대인관계
- 말로 표현
- 소모에 의한 에너지 충전
- 사교성, 인사
- 여러 사람과 동시에 대화
- 정열적, 활동적
- 경험한 다음에 이해
- 쉽게 알려짐

내향성

- 에너지 집중이 자기 내부세계로
- 내부활동과 집중력
- 소수와 깊이 있는 인간관계

- 말로 표현
- 비축에 의한 에너지 충전
- 자기만의 공간
- 1 : 1의 대화
- 조용하고 신중
- 이해한 다음 경험
- 서서히 알려짐

2) 감각-직관(Sensing-iNtuition)

내향성의 I와 중복을 피하기 위해 직관은 N으로 표시한다.

감각경향은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인지되는 사실과 사건을 선호하는 경향성을 뜻하며 직관경향은 오관보다는 직관을 통하여 의식을 넘어 작용하는 의미, 관계, 가능성을 선호하는 경향성을 뜻한다.

감각기능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내적, 외적세계에 무엇이 존재하는가 또한 그것들이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자신의 감각기관에 의존하여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감각기능은 상황의 실체를 이해하는데 특히 유용하다. 감각형의 사람들은 무엇이 현재 이 상황에 주어졌는가를 수용하고 처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특징을 지닌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현재를 있는 그대로 즐기고 순서에 입각해서 차근차근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근면 성실한 형이며 구체적인 사실을 보기 위해 때로는 전체를 보지 못할 수 있다.

직관기능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오관에 의해 얻어진 정보와 차원을 넘는 가능성이나 보다 심오한 의미와 전체적인 관계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감에 의존하여 얻어낸다. 직관은 전체를 파악하고 본질적인 패턴을 이해하려고 애쓴다. 만일 당신이 직관형이라면 당신은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일처리 방식을 추구하며 모색하게 된다. 직관형은 상상력과 영감에 더 큰 가치와 비중을 둔다. 이런 사람들은 현재에 머무르기보다는 미래의 성취와 변화, 다양성을 더욱 즐기고 전체를 보기 위해 세밀한 사항은 간과하는 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새로운 일, 복잡한 일에 겁없이 뛰어드는 경향이 있다.

- 김각형
- 오감

주의 초점이 현재와 과거
실제의 경험
사실적이고 구체적
실태 파악
현실 수용
일관성과 일상성
사실적 사건묘사
관례에 따르는 경향
가꾸고 따르는 경향
나무를 보려는 경향

직관형

육감
주의 초점이 현재와 미래
아이디어
상상적이고 영감적
가능성과 의미 추구
미래 지향신속 비약적인 일처리
변화와 다양성
비유적, 암시적 묘사
새로운 시도 경향
씨 뿌림
숲을 보려는 경향

3) 사고-감정(Thinking-Feeling)

일단 당신이 인식과정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으면 당신은 그 정보를 가지고 판단, 결정, 선택을 하게 된다. 어떤 사람은 개인과는 관계없이 논리적 결과에 의거하여 결정을 내리는 사고형이고, 어떤 사람은 개인적, 인간적 가치에 근거하여 우선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감정형이다.

사고형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선택이나 행동에 대한 논리적인 결과들을 예측하여 의사를 결정한다. 당신이 사고기능을 활용할 경우 객관적인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정보를 분석, 비교하여 의사 결정에 다다른다. 이런 사람들은 일관성과 타당성을 중시하며 내가 그것을 싫어하건 좋아하건 상관없이 원리원칙에 입각하여 결정한다. 그러므로 무엇이 진실한가에 관심이 많으며 자신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가치보다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중시하는 편이다.

감정형의 사람들은 당신과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중요한지에 더욱 초점을 두므로 인간중심의 가치에 기초를 둔 결정을 내리게 된다. 당신이 감정기능을 활용한다면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당신이 어떤 가치를 느끼고 당신과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가 더 중요하게 된다. 감정기능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좋아하고, 동정심이 많으며, 남을 인정할 줄 알고, 재치가 있는 편이다. 객관적인 진리보다는 보편적인 선을 더욱 선호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화를 중시하며 사람에 대한 열정이 많은 편이다. 여기서 감정기능이란 정서를 일컫는 말이 아니고 당신이 사람중심의 가치에 기초를 두고 의사결정을 한다는 개인의 주관적 가치를 뜻한다.

사고형

관심의 주제가 사실, 진실
객관적 진실
원리와 원칙
논리적, 분석적
간단명료한 설명
지적논평을 선호
객관적 판단
원인과 결과가 중요
규범과 기준을 중시

감정형

관심의 주제가 사람, 관계
보편적인 선
의미와 영향
상황적, 포괄적
정상을 참작한 설명
우호적 협조
주관적 판단
좋다, 나쁘다가 중요
나에게 주는 의미

4) 판단-인식(Judging-Perceiving)

마지막 선호의 지표는 당신이 외부세계를 받아드리는 방식이나 외부세계에 대한 당신의 태도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다. 어떤 사람은 사고나 감정의 판단과정을 사용하기를 선호하고 또 다른 개인은 감

각이나 직관의 인식과정을 사용하기를 선호한다.

판단태도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생활을 조절하고 통제하기를 원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 당신이 판단기능을 쓸 때는 결정하고, 일에 종결을 짓고서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사람들은 구조화되고 조직화되는 것을 더 좋아하고 일이 정착되는 것을 더욱 선호한다. 흔히 이들은 계획에 따라 일을 추진하고 미리 준비하는 편이며 정한 기간 내에 일을 마무리 짓는 편이다. 여기서 판단이란 당신이 외부세계에 대해서 구조화된 접근을 선호한다는 의미이며 비판적 혹은 판단적이라는 뜻이 아니다.

인식태도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상황에 맞추어 적응하며 자율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들은 삶을 통제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도 적응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을 믿고 과정을 즐기면서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항상 개방적이기를 좋아한다. 그러므로 다양한 기회를 좋아하고 조직되어 있지 않은 애매한 상황에도 잘 적응해 나간다. 모든 경험에 열려져 있고 정한 시간 내에 일을 마무리짓지 못할 때도 있으나 그때 그때 자발성을 가지고 상황에 대처해 나가는 편이다.

판단형

- 체계적
- 정리정돈과 계획
- 의지적 추진
- 신속한 결론
- 통제와 조정
- 분명한 목적의식과 방향감각
- 뚜렷한 기준과 자기의사

인식형

- 자율적
- 상황에 맞추는 개방성
- 이해로 수용
- 결론보다는 유유자적한 과정
- 융통과 적응
- 목적과 방향의 변화
- 환경에 따른 변화

위에서 설명한 MBTI의 4쌍 8개의 선호경향이 조합되어 16가지의 성격유형을 만들어 낸다.

이상으로 MBTI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통계상 결과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

먼저 (표 2, 3, 4, 5)를 보고 고찰하여 보자

아래에서 사상 체질의 심성에 대한 내용은 “알기 쉬운 사상의학”에서 인용하였다.

1. 외향성(Extroversion)과 내향성(Introversion)

(표2)를 보면 전체 인구에서 내향성이 65%, 외향성이 35%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 중 내향성은 55%, 외향성은 45%로 평균과 차이가 있는데 이는 본원이 위치한 곳이 상가 밀집지역이라 내원한 환자 중 외향성의 상가 종사가 다소 많아서 평균보다 외향성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지표들도 전체 인구 평균과 차이가 나는 것은 같은 이유에서이다.

태음인은 내, 외향성이 반반이나 소양인은 내향성인 사람이 소양인의 57%로 조금 더 많았다. 그러므로 ‘태음인이 과묵하고 침착하다거나 잘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등의 내성적인 성격표현은 태음인의 반정도만 해당된다. 또한 ‘소양인이 활동적이고 적극적이다.’ 등의 외향성의 표현은 소양인의 43%에게만 해당된다.

소음인은 내향성이 65%로 비교적 ‘소음인이 내성적이다.’는 견해와 일치하나 나머지 35%는 외향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감각(Sensing)과 직관(Intuition)

(표3)을 보면 전체 인구에서 감각형은 80%이고 직관형은 20%이다. 조사집단에서 감각형은 89%, 직관형은 11%이다. 태음인은 직관형이 14%, 소양인은 직관형이 9%, 소음인은 직관형이 15%이다.

‘태음인이 보수적이고 변화를 싫어하며 현재에 충실하다.’는 견해는 감각형에 대한 설명인데 다른 체질과 분포상 별 차이가 없었다.

‘태양인은 통찰력, 직관력이 뛰어나다.’는 견해는 직관형에 대한 설명인데 다른 체질에도 직관형은 고루 분포하고 있다.

‘소음인이 치밀하고 꼼꼼하다.’는 것은 감각형이다. 특히 감각형이면서 판단형(SJ)이 더욱 그러한데 감각

형이고 판단형(SJ)은 다른 체질도 많이 분포하고 있다.

3. 사고(Thinking)와 감정(Feeling)

(표4)를 보면 전체 인구에서 사고형은 65%, 감정형은 35%이다. 조사집단에서 사고형은 76%, 감정형은 24%이다. '소양인은 사사로운 정에 잘 치우치고 공사의 구분을 잘 못하고 감정에 따라 일하거나 무원칙한 경우가 많다.'는 것은 감정형에 해당하는데 다른 체질에 비해 감정형이 25%로 조사 대상자의 평균정도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다른 체질에 비해 감정형이라 할 수 없다.

4. 판단(Judging)과 인식(Perceiving)

Jung은 판단(J)과 인식(P)의 중요성에 대해서 암시는 했으나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융은 판단과 인식이 제외된 8가지 유형을 제시했고 마이어스, 브릭스 모녀에 의해 판단과 인식의 개념이 완전하게 정리되어 16가지 유형이 되었다.

(표5)를 보면 전체 인구에서 판단형은 65%, 인식형은 35%이다. 조사집단에서는 판단형 52%, 인식형 48%이다.

태음인은 인식형이 태음인의 53%로 평균보다 많았다. 소음인은 판단형이 소음인의 9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태음인이 환경에 적응을 잘 한다는 견해가 있다. 환경에 적응을 잘 한다는 것은 인식형에 해당하는데 태음인의 53%가 인식형으로 소양인 인식형 50%에 비해 많기는 하나 유의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소음인은 인식형이 소음인의 10%로 매우 적고 대부분이 판단형이었다.

'소양인이 일을 잘 벌이기만 하고 마무리를 잘 못한다거나 집밖의 일은 좋아하나 집안의 일은 잘 하지 못한다.'는 견해는 외향형의 인식형(EP)이다. 이와 반대되는 내향형의 판단형(IJ)인 소양인이 오히려 조금 더 많았다.

5. 사상체질 설명지와 성격유형 설명지의 일치도 비교

본 논문에서 이 설명지를 시행하게 된 이유는 사상체질 심성 설명의 내용들을 개개별로 전부 성격유형의 선호지표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다. 가령 소음인이 불안정한 마음이 많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불안정한 마음을 성격유형의 선호지표로 표시하기는 어렵고 객관성도 없기 때문이다. 위의 고찰 1, 2, 3, 4의 개별 선호지표에서 체질 심성에 대한 표현 중 선호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고찰하여 보았지만 다수의 내용들은 선호지표와 짝 지우듯 대입하기는 어려운 관계로 그래서 하나의 체질 심성의 내용과 하나의 성격유형의 내용을 조사 대상자로 하여금 전체적인 내용이 자신과 각각 어느 정도 부합하는가를 %로 표시하게 하였다. 즉 세세한 항목에서의 상호 비교가 어려운 대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합의 정도를 비교하는 것으로 방법을 정한 것이다. 이것이 설명지를 설문하게 된 동기이다.

전체 조사대상자에서 소양인:태음인:소음인:태양인의 숫자가 200명:143명:20명:5명이며 비율이 54%:40%:5%:1%이다. 이것을 표준비율이라 하자.

(표12)를 보면 16성격유형별 소양인:태음인:소음인 비율이 있다. 이것을 표준비율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차이가 생기는 유형이 있다. 이러한 비교를 하는 이유는 어느 한 성격유형에서 특별히 어느 한 체질이 다른 체질보다 많이 차지하는 성격유형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유의할 만한 것은 없었으며 한 성격유형 안에 체질이 모두 비교적 고르게 있었다. 그래도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유형은 ISTJ, ISFJ, INFJ, ENFJ, INFP, ENTP이다.

ISTJ는 비율이 64%:26%:9%로 소양인과 소음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태음인 비중이 낮았다. 그런데 ISTJ는 태음인 심성 설명지와 일치도가 69로 다른 유형에 비하여 높았으나 실제 태음인의 비중 26%는 표준비율 40%보다도 낮았다. 또 소양인 심성 설명지와 일치도가 23으로 다른 유형에 비하여 가장 낮았으나 실제로는 소양인이 차지하는 비중 64%는 표준비율 54%에 비해 가장 높았다.

소양인 중 가장 많은 ISTJ형의 소양인이 소양인의 심성 설명에 가장 낮은 일치도를 보였다라는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ISFJ는 59%:24%:10%로 소양인과 소음인 비중이 높았다.

ISFJ는 태음인 심성 설명지와 일치도가 61로 다른

유형에 비하여 높은 편이나 태음인 비중은 24%로 표준 40%보다 낮은 편이고 또 소양인 심성 설명지와 일치도가 44로 다른 유형에 비하여 낮은 편이나 실제로 소양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9%로 표준비율 54%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ISFJ에서도 ISTJ와 같은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이 두 유형은 전체 조사 대상자의 31%에 해당한다.

INEJ는 해당 숫자가 적어서 통계상 의의가 낮지만 50%:17%:33%로 태음인 비중이 낮았다. INEJ는 소음인 심성 설명지와 일치도가 73으로 가장 높았으며 태음인 심성 설명지와 일치도가 40으로 낮았고 실제로도 태음인 비중이 17%로 낮았다.

INTJ도 해당 숫자가 적어 통계상 의의가 낮지만 고루 1명씩 있었다.

ISTP와 ISFP는 둘 다 태음인 심성 일치도가 61로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편이나 소양인 심성 일치도는 각각 26, 28로 낮은 편이었다. 이 두 유형의 소양인은 소양인의 심성 설명에 자신과 다르다고 하였다. 이 두 유형은 전체 조사 대상자의 17%에 해당한다.

ENFJ는 소양인만 2명 있었다. 소양인 심성 설명지와 일치도도 85로 높았다.

INFP는 30%:70%:0, ENTP는 40%:60%:0, ENFP는 44%:56%:0으로 태음인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태음인 심성 설명지와 일치도는 각각 53, 23, 21로 낮은 편이었다. 이 세 유형의 태음인은 태음인 심성 설명에 호응하지 않았다. 이 세 유형은 전체 조사 대상자의 7%에 해당한다.

ESFP, ESFJ, ESTJ, ESTP는 모두 소양인 심성 일치도가 각각 87, 82, 65, 61로 가장 높은 그룹이며 이 네 유형은 전체 조사대상자의 39%에 해당한다. 반면에 ESFP, ESFJ, ESTP는 태음인 심성 일치도가 각각 15, 20, 25로 가장 낮은 그룹이다. 이 세 유형에서 태음인은 모두 39명으로 전체 태음인의 27%인데 이들은 태음인 심성 설명이 자신과 맞지 않았다.

(표13)을 보면 16가지 성격유형 가운데 전체 인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들은 ISTJ(30%), ESTJ(15%), ISFJ(15%), ESFJ(8%), ISFP(8%) 순이다. 이

들 가운데 ISTJ, ESTJ, ISFJ, ISFP의 태음인 심성 일치도는 각각 69, 59, 61, 61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즉 인구비중이 높은 유형들과 인구비중이 가장 높은 태음인과는 일치성이 높아 태음인 심성 일치도의 평균은 높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ESTJ를 제외한 외향형들의 태음인 심성 일치도의 평균은 매우 낮고 더 문제는 위의 전체 인구비중이 높은 유형들 중 ISTJ, ISFJ, ISFP와 소양인 심성 일치도는 각각 23, 44, 28로 매우 낮아서 소양인 심성 일치도의 전체 평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전체 사상체질 심성 설명지와 일치도 평균은 47로 낮다. 이에 반하여 성격유형 설명지와 일치도 평균은 76이다.

* 나에게 MBTI를 알게 해주시고 이 논문을 쓰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부산대 심혜숙 교수님과 한국MBTI 연구소 연구원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부산 동의대 사상의학교실 김종원 교수님의 조언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參 考 文 獻

1. 이부영: 분석심리학, 제4장 심리학적 유형론, 일조각
2. 송일병; 알기 쉬운 사상의학, 사상사 p39 - p47
3. 김정택, 심혜숙 공역: 나의 모습 나의 얼굴, 한국심리검사연구소
4. 박은경, 박성식; QSCCII 설문지 문항에서의 체질별 응답차이 비교 분석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2(2), 78-93, 2000
5. 한국 MBTI 연구소: MBTI 전문 자격 교육 초급, 보수, 중급, 어린이 과정 자료집 1, 2, 3, 4권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120-1
6. 김정택, 심혜숙; MBTI 개발과 활용, 한국심리검사연구소
7. 박희관, 이종화; 이제마의 사상체질과 음의 심리학적 유형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0(2), 41-50, 1998